

예비유아교사의 따돌림 인식에 대한 연구

배재현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Bullying

Jae-Hyun Ba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1Division of Information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313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인식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 현장관찰수업유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함',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모함을 하는 일이 잦음'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따돌림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함'이 가장 높았고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이 가장 높았다. 넷째, 가해 이유에 대한 인식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재미로'가 가장 높았고 따돌림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의 문제'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주요 수행기관은 교사,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 유아교육기관, 교육청 순이었다. 교사의 역할로는 '학급에서 고립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가장 높았고, 부모의 역할로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기'가 가장 높았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역할로는 '교육과정 중에서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bullying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e scene of the bullying that occur by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bullying to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13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PSS Win program was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ANOVA. (1)The perception of bully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classroom observation, education program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 (2)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action that can be seen as bullying followed by 'apply the violence, such as kicking, or were frequent', 'shared in things that often prevents', 'often to another carrier or shame in front of a friend'. (3)Percep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bullying Perpetrators was 'aggressive behavior and talk much' and percep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bullying victims was 'shy and not much'. (4)The reason of bullying perpetrators was 'just for fun without a special reason' and the cause of bullying victims was 'problem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home environment'. (5)Important institutions to combat bullying prevention followed by teacher, parents and family, community and the nation,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 Teachers guidance content of combat and prevent bullying was 'to be isolated from the class to infants continue to monitor'. Parents guidance content of combat and prevent bullying was 'communicate a lot and attention to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guidance content of combat and prevent bullying was 'operations to come up with th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in educational time'.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increasing perception of bullying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words : Perception Of Bully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Bullying Victims, Bullying Perpetrators, Education Program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

*Corresponding Author : Jae-Hyun Bae(Taegu Science Univ.)

Tel: +82-53-320-1794 email: cinespac@tsu.ac.kr

Received February 10, 2019

Revised March 11,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본 계획에서는 협동과 배려의 또래활동으로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취약요인 관리 강화,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 내실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폭력없는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대부분은 그 대상이 초등 이후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다[1].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격’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가르치기도 하여 친구들 간의 화해와 사과를 위한 개입의 시간이 부족하다[2]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 간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징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아 간 폭력사안 발생 시 유치원 현장에서는 초등 관련 조항 중 일부 가능한 내용을 인용하거나 법률 자문 구하기, 이전의 유사한 사례를 겪은 다른 유치원에 문의하는 정도의 대처를 하고 있다[3]. 최근의 학교폭력 특징 중 하나인 대상자 연령의 하향화를 적용해 볼 때, 유아기와 학령기를 연계함과 동시에 유아기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유아들은 가정을 벗어나 처음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새로운 또래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함양하며, 때론 갈등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도 함께 체득하게 된다. 하지만 유아기의 부적응 행동들은 성장 후에도 자신감 부족, 대인관계 결핍, 이기적이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등의 폭력 행동, 반사회적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 유치원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따돌림을 받지 않은 다음 학기까지도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를 볼 때, 유아교사들의 따돌림에 대한 문제의식 및 올바른 대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im[6]은 영유아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따돌림이나 배척 현상을 본 적이 있다’가

52%, ‘또래를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성향을 지닌 영유아의 비율’로는 ‘한 반에서 10% 이내’가 91.8%,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영유아가 정해져 있다’가 49.7%, ‘유아들 간 욕이나 비속어 등 좋지 못한 언어 사용하고 있다’도 36.7%이었으며 교사의 26.7%는 공격적인 유아를 지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과반 수 이상의 현직 영유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때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학교폭력 현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이후의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6, 7, 8, 9]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전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어린 유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현장경험이 부족하여 폭력의 심각성과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직 과목으로 이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라는 교직과목의 수강유무에 따라서, 현장 경험의 기회가 되는 보육실습과 관찰수업의 유무에 따라서 따돌림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결과 아동학대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0]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대학생들의 인성 수준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1]를 적용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에게 적절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들의 따돌림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들의 직전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들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학년, 보육실습유무, 현장관찰수업유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수강유무)에 따라 따돌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따돌림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따돌림 가해 이유에 대한 인식, 따돌림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주요 수행기관을 확인하고, 수행기관별(교사, 부모, 유아교육기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D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3명(1%), 여학생 310명(99%)이었고, 학년은 1학년 107명(34.2%), 2학년 102명(32.6%), 3학년 104명(33.2%)이었다.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은 105명(33.5%)이었고 현장 관찰수업을 받은 학생은 206명(65.8%)이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113명(36.1%)이었다 (Table 1).

2.2 측정도구

2.2.1 따돌림 인식 척도

따돌림에 대한 인식 척도는 Song과 Lee[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예비유아교사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주도해야 할 수행기관에 대한 인식, 수행기관별(교사,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제외한 모든 척도들은 각 1문항의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4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1)
	female	310(99)
Grade	1st	107(34.2)
	2nd	102(32.6)
	3th	104(33.2)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None	208(66.5)
	Have	105(33.5)
Classroom Observation	None	107(34.2)
	Have	206(65.8)
Education program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None	200(63.9)
	Have	113(36.1)

2.2.2 따돌림 대상 아동의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척도

따돌림 대상 아동의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척도는 Lee와 Lee[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따돌림 가해 이유에 대한 인식, 따돌림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각 1문항의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학년, 보육실습유무, 현장관찰수업유무, 교과목수강유무에 따른 따돌림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의 인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따돌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 현장관찰수업을 받은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Perception about bully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Perception about bullying	
			M(SD)	F
Grade	1st	107	3.62(.46)	a
	2nd	102	3.65(.45)	a
	3th	104	3.81(.47)	b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None	208	3.63(.46)	10.40**
	Have	105	3.81(.47)	
Classroom Observation	None	107	3.62(.46)	4.10*
	Have	206	3.73(.47)	
Education program	None	200	3.63(.46)	10.81***
	Have	113	3.81(.46)	

*p<.05, **p<.01, ***p<.001

3.2 따돌림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인식

따돌림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함',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모함을 하는 일이 잦음', '놀이에 전혀 끼워주지 않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일이 잦음',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을 자주 함',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이 잦음'에서 모두 91% 이상의 높은 인식을 보였고,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들추어내어 비난하는 경우가 잦음' 87.5%, '물건이나 장난감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빈번함' 84%, '물건으로 쿡쿡 찌르거나 슬쩍 건드리는 경우가 많음' 66.5%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Table 3).

3.3 따돌림 가해 유아와 피해 유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따돌림 가해 유아의 특성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함' 34.2%, '욕심이 많고 이기적임' 31.9%, '똑똑하

Table 3.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action that can be seen as bullying (N=313)

Variables	Categories	N(%)	
		Yes	No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action that can be seen as bullying	Not included in play	294(93.9)	19(6.1)
	Often ignore or a teasing comment	285(91.1)	28(8.9)
	Goods and toys in his care would take away were frequent	263(84.0)	50(16.0)
	Words often to ignore and not answer when he walked in	291(93.0)	22(7.0)
	Often to another carrier or shame in front of a friend	295(94.2)	18(5.8)
	I don't want what forced me to do often	285(91.1)	28(8.9)
	Apply the violence, such as kicking, or were frequent	299(95.5)	14(4.5)
	Poke in kind or often that a push	208(66.5)	105(33.5)
	Shared in things that often prevents	296(94.6)	17(5.4)
	Often find what I can't make very good at criticism	274(87.5)	39(12.5)

Table 4. Characteristics of bullying perpetrators and victim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Bullying Perpetrators	Aggressive behavior and talk much	107(34.2)
	Greedy and selfish	100(31.9)
	A smart and be quick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39(12.5)
	Tall and strong	36(11.5)
	Good at making good friends and outgoing	24(7.7)
	Model behavior	5(1.6)
	The others	2(0.6)
Bullying Victims	Shy and not much	84(26.8)
	Don't want to play well with my friends and plays alone	79(25.2)
	Selfish or stubborn	48(15.3)
	Intellectual disability or physical disability	25(8.0)
	Emotional disability	22(7.0)
	Don't play with the rules keep promise well in the same class	21(6.7)
	Short or obese	17(5.4)
	Tell on my friends to your parents and teacher	9(2.9)
	Hit friends or make fun of friends.	8(2.6)

고 인지발달이 빠름' 12.5%, '키가 크고 힘이 셸' 11.5%, '친구를 잘 사귀고 활발한 성격' 7.7%, '교사를 잘 따르고 모범적임' 1.6% 순이었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 유아의 특성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 26.8%, '친구들과 잘 놀려고 하지 않고 혼자 놀' 25.2%, '이기적이거나 고집을 부림' 15.3%, '지적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음' 8%, '정서적 장애가 있음' 7%, '놀이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6.7%, '키가 작거나 비만임' 5.4%, '교사나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이름' 2.9%, '친구들을 때리거나 놀림' 2.6% 순으로 인식하였다(Table 4).

3.4 따돌림 가해 이유와 따돌림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

따돌림 가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33.9%,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따라서' 32.9%,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21.4%, '상대방이 따돌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8.6%, '자신이 따돌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1% 순이었다. 따돌림 현상 원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의 문제' 47%, '인성, 사회성, 도덕성 교육의 부재' 18.2%, 'TV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문화의 영향' 14.7%, '가해 유아의 성격 문제' 13.1%, '피해 유아의 성격 문제' 6.4%, '유아교육기관의 문제' 1% 순이었다(Table 5).

3.5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주요 수행기관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주요 수행기관으로는 교사 54.6%, 부모와 가정 24.9%, 지역사회 및 국가 11.5%, 유아교육기관 7%, 교육청 1.9% 순이었다(Table 6).

3.6 주요 수행기관별 따돌림 예방 및 대처법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급에서 고립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62.3%, '학급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12.5%, '친구와 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인식시키기' 7.7%, '친구들과 놀 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기' 6.7%, '배척당하는 유아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6.4%, '부모와 상담을 통해 협력하기' 3.8% 순이었다(Table 7).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기' 70.9%, '자녀에게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8.9%, '무조건 자기 자녀만 옳다는 식으로 편들지 않기' 8%, '부모가 따돌림을 유도하지 않기' 5.4%,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기' 4.2%, '과잉보호 하지 않기' 2.2%,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0.3% 순이었다(Table 7).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과정 중에서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48.9%, '가해 유아와 피해 유아의 특성을

Table 5. The reason of bullying perpetrators, The cause of bullying victim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The reason of bullying perpetrators	Just for fun without a special reason	106(33.9)
	I was out with my friends	103(32.9)
	To demonstrate the power of yourself	67(21.4)
	Target is busy when I get the runaround because he behaved in a will	27(8.6)
	Odd man out he was in retaliation for what.	3(1.0)
	The others	7(2.2)
The cause of bullying victims	Problem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home environment	147(47.0)
	The absence of character education, social education, moral education	57(18.2)
	The impact of a violent culture in TV and movies.	46(14.7)
	Perpetrator child's personality problems	41(13.1)
	Victim child's personality problems	20(6.4)
	A matter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gency	1(0.3)
	The others	1(0.3)

Table 6. Important institutions to combat bullying prevention (N=313)

Variables	Categories	N(%)
important institutions	Teacher	171(54.6)
	Parents and Family	78(24.9)
	Community and the nation	36(11.5)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	22(7.0)
	Education Office	6(1.9)

Table 7. Guidance content of combat and prevent bullying (N=313)

Variables	Categories	N(%)
Teacher	To be isolated from the class to infants continue to monitor	195(62.3)
	Social skills needed when hanging with friends to let me know	21(6.7)
	To promote confidence in an infant who is ostracized	20(6.4)
	With a friend to similarities or differences about the perception of me	24(7.7)
	A welcome action and to make an act not felt to his or her own age	1(0.3)
	Prosocial behavior of the infant classes to promote	39(12.5)
	To cooperate through consultation with parents	12(3.8)
	The others	1(0.3)
Parents	Communicate a lot and attention to children	222(70.9)
	Foster a lot of character education to children	13(4.2)
	An extra safeguard wouldn't have to do	7(2.2)
	Absolutely not siding with their only way that the right	25(8.0)
	Never to parents are the bullying	17(5.4)
	Excessive expectations, and not the burden to their children	1(0.3)
	Children psychological stability at home to create domestic setting	28(8.9)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The others	0(0.0)
	Operations to come up with th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in educational time	153(48.9)
	Such as the perpetrator and victim counseling organization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rnal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91(29.1)
	Make the teachers ' studying group about Bullying	43(13.7)
	Education to prevent their parents to give bullying	25(8.0)
	The others	1(0.3)

파악하여 외부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하기' 29.1%, '따돌림에 대한 교사 연수 기회 마련하기' 13.7%, '학부모에게 따돌림 방지 교육 실시하기' 8% 순으로 인식하였다(Table 7).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 현장관찰수업을 받은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축적될 뿐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육실습은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관찰수업을 통

해 다양한 교육적 기회도 증가하여, 이러한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따돌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연구결과[13]를 적용해 볼 때,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이 교과목은 예비유아교사들의 따돌림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 시, 학년, 교육실습과 현장관찰수업 경험유무, 관련 교과목 이수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따돌림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놀이에 전혀 끼워주지 않음',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을 자주 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일이 잦음', '다른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모함을 하는 일이 잦음',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이 잦음',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함',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이 91% 이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들추어내어 비난하는 경우가 잦음', '물건이나 장난감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빈번함'이 84%이상이었으며, '물건으로 쿡쿡 찌르거나 슬쩍 건드리는 경우가 많음'은 66.5%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7]와 일치한다. 또한 만5세

유아의 따돌림 행동중 놀리는 것과 같은 언어적 따돌림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소외적 따돌림이 제일 높다는 연구결과[5]도 이를 지지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직 교사들에 비해 유아교육 현장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물건으로 쿡쿡 찌르거나 슬쩍 건드리는 경우가 많음’의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따돌림 행동들에 대한 인식이 이미 현장에서 보여지는 따돌림의 모습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비유아교사의 이러한 인식이 앞서 말한 실습과 같은 학교 경험적 요인 이외에 개인적 경험 혹은 다른 변인의 영향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따돌림 가해 유아의 특성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함’, ‘욕심이 많고 이기적임’, ‘똑똑하고 인지발달이 빠름’, ‘키가 크고 힘이 셸’, 친구를 잘 사귀고 활발한 성격’, 교사를 잘 따르고 모범적임’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가해아동의 특성 중, ‘욕심이 많고 이기적임’, ‘똑똑하고 인지발달 빠름’이 61%로 가장 높았고, ‘공격적인 행동’은 12%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가해 유아의 특성으로 개인적인 요인 중 성격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들을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누리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공감 및 협동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을 유아들에게 실시하고 있기에[4], 현직교사들은 직접적인 공격의 따돌림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에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가해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현장경험을 쌓기 시작한 초임 교사들이라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따돌림 가해 유아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 중 실제 모습과 상이한 것은 무엇인지, 가해 유아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등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 유아의 특성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 ‘친구들과 잘 놀려고 하지 않고 혼자 놀’, ‘이기적이거나 고집을 부림’, ‘지적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음’, ‘정서적 장애가 있음’, ‘놀이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키가 작거나 비만임’, ‘교사나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이름’, ‘친구들을 때리거나 놀림’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피해아동의 특성으로 ‘놀이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이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잘 놀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놀’, ‘친구들을 때리거나 놀림’,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 순이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규칙

을 잘 지키지 않음’과 ‘친구를 때리거나 놀림’을 높게 인식한데 반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놀이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과 친구들을 먼저 때리거나 놀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때론 가해와 피해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서로 쌍방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있다. 유아기에는 대인관계 기술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이 따돌림의 피해를 부추긴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에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피해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넷째, 따돌림 가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따라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따돌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따돌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가해의 이유로 ‘상대방이 따돌림 당할 만한 행동을 해서’와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따라서’가 60%로 가장 높았고, ‘그냥 재미로’는 7.5%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돈독히 하려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타인을 따라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예비유아교사들이 높게 인식한 ‘단순한 재미로’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 대한 결과[12]와 차이가 있어, 현장의 따돌림 발생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따돌림 현상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정환경의 문제’가 가장 높았고 ‘인성, 사회성, 도덕성 교육의 부재’, ‘TV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문화의 영향’, ‘가해 유아의 성격 문제’, ‘피해 유아의 성격 문제’, ‘유아교육기관의 문제’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적다는 연구결과[14], 유아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15]도 이를 지지한다. 따돌림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예방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는 이를 통해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수정할 기회를 가지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고충을 교사와 함께 상의하고 자녀 맞춤형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주요 수행기관으로는 교사가 54.6%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가정 24.9%, 지역사회 및 국가, 유아교육기관 7%, 교육청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7]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유치원 교사들은 부모와 가정을 64.5%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교사 17.4%, 유치원 10.7% 순이었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데 반해, 현직 교사들은 부모와 가정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에 대한 개념을 연구한 결과[16], 공통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위개념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이론과 지식을 강조하는데 반해, 현직 유아교사들은 기관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해 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현장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 또한 부족한 결과 교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데 반해, 현직교사들은 기본적인 형식의 따돌림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때론 유아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갈등이나 충돌을 경험하면서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따돌림에 대해 교사의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단지 교사는 보호와 감독의 의무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에서 발생한 따돌림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해, 평소의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책임 주체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식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급에서 고립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가장 높았고, ‘학급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친구와 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인식시키기’, ‘친구들과 놀 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기’, ‘배척당하는 유아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부모와 상담을 통해 협력하기’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7]와 일치한다.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은 유아들 간의 단순한 장난과 따돌림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절한 교사개입을 이끌 것이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유아들의 행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의 도움요청 신호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직교사들은 평소에 자신이 맡고 있는 유아들과 그들의 일상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예비유아교사들도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시, ‘판단미숙’, ‘의사소통 어려움’,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든다는 연구결과[17]를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판단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기’가 가장 높았고, ‘자녀에게 가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무조건 자기 자녀만 옳다는 식으로 편들지 않기’, ‘부모가 따돌림을 유도하지 않기’,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기’, ‘과잉보호 하지 않기’,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7]와 일치하고, 유아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15]와 아동기 부모의 과보호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18]도 이를 지지한다.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경우,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이다. 평소에 부모와 적절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유아라면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도움 요청이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이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간과할 수도 있고, 자녀의 피해 상황을 과도하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하며, 교사나 전문가,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다른 학부모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요구도 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돌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과정 중에서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가 가장 높았고, ‘가해 유아와 피해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외부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하기', '따돌림에 대한 교사 연수 기회 마련하기', '학부모에게 따돌림 방지교육 실시하기'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학부모에게 따돌림 방지교육 실시하기'를 38%, '교육과정 중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23.6%, '따돌림에 대한 교사 연수 기회 마련하기' 순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외부 상담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높게 인식한데 반해, 현직 교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따돌림 방지교육 실시를 높게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에서 유아 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유사 사례를 겪은 타유치원에 문의한다는 점[3]에서 볼 때, 대처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전문가 개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유아와 학부모, 교사를 연계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인식은 일반적인 특성(학년, 보육실습 유무, 현장관찰수업유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일이 빈번함',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친구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모함을 하는 일이 잦음'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따돌림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함'이 가장 높았고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이 별로 없음'이 가장 높았다. 넷째, 가해 이유에 대한 인식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가 가장 높았고, 따돌림 현상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의 문제'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예방 및 대처의 주요 수행기관은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 유아교육기관, 교육청 순이었다. 교사의 역할로는 '학급에서 고립되는 유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부모의 역할로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기', 유아교육기관의 역할로는 '교육과정 중에서 따돌림 방지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에는 경력에 따른 현직 교사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가정요인, 학교 및 사회요인, 또래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 유아들을 대상으로 가벼운 폭력의 조건, 단순한 장난과 폭력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는 '가벼운 학교폭력 한 번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19]고 발표하였는데,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유 중 '단순한 장난으로'가 30.8%로 가장 높아,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아들의 관계 맺기에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하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래 짝짓기' 활동이 또래 유아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관계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결과[20]를 적용해 볼 때, 또래의 긍정적인 관계 발달을 용이하게 하는 유아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유아들의 따돌림 현상에 대한 예방적 개입모델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후 관리나 조사 등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자녀의 올바른 인성발달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듯이, 부모와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유아들의 인성발달과 폭력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ferences

- [1] S. Y. Jang, A thir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8079>, the Ministry of Education, cited 2014 Dec 24.
- [2] I. H. Ryu, School violence rather than reconciliation : The reality of the first grade,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30927001&code=940100, Kyunghyang Shinmun, cited 2018 Dec 23.
- [3] S. S. Lee, Scholarship information materials and help prevent violence starting from a kindergarten school, Available From: http://ibedu.sen.go.kr/CMS/introduction/introduction07/introduction0701/1269386_3859.html, Seoul

-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ited 2017 Nov 14.
- [4] E. J. Shim,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arents and teachers f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preschoo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2017.
 - [5] E. J. Jang, *Bullying Behavior of Five year old children*,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Korea, 2006.
 - [6] E. S. Kim, Call Capacity Improvement Methods for the infan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http://www.kicce.re.kr/kor/objective/02.jsp?mode=view&idx=6823&startPage=60&listNo=68&code=works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 le=10&view_level=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ited 2013 Apr 9.
 - [7] E. K. Song, K. M. Lee,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kindergarten teachers' awareness of bullying occurring in kindergart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3, pp.289-315, 2014.
 - [8] M. H. Ryu, Y. H. Park, Peer harassment and bullying for infants and children about the efficacy of awareness and teacher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cademic conference*, No.1, pp.512-512, 2015.
 - [9] J. A. Ryu, E. S. Kim, Recognition of students' parents about kindergarten school violence, A Study on the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4, pp.523-547, 2016.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1-4-22>
 - [10] Y. B. Yun, J. H. Ryu, The Effects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 Abuse Prevention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Personality, Teaching Efficiency,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6, No.4, pp.277-303, 2017.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7.26.4.15>
 - [11] Y. R. Chae, E. A. Kim,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Pre-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9, No.4, pp.473-488, 2018.
DOI: <https://doi.org/10.22143/hss21.9.4.35>
 - [12] J. Y. Lee, J. Y. Lee, Study of Bullying by Children in Kindergartens and Teacher's Perception of it,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Vol.16, No.2, pp.49-67, 2003.
 - [13] H. J. Kwak, M. H. Kim, An Analysis of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Collected pap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8, No.6, pp.263-281, 2014.
 - [14] I. Y. Han, J. S. Hong, H. J. Mo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 Offensive Behaviors, *Study on the Youth Welfare*, Vol.15, No.1, pp.181-200, 2013.
 - [15] J. Y. Lee, The Effects of Parents' Overprotection o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Korean Education Problem Study*, Vol.33, No.2, pp.1-19, 2015.
 - [16] Y. S. Lee, S. M. Ryu, H. R. Kim, A study of parent Education ConCept Mapping of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8, No.3, pp.411-431, 2014.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4.10.4.029>
 - [17] D. M. Seo, J. K. Jo, The Difficulties of Teaching and Teaching Schemes for Behavioral Problems of Child Through the Journal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emotional behavior disorder*, Vol.27, No.2, pp.179-208, 2011.
 - [18] S. J. Kwon, S. N. Oh, S. H. Lee,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to Young Children's Behaviors Problems: Children's, Mothers', and Peer Relationships' Variabl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4, pp.385-406, 2016.
DOI: <https://doi.org/10.22155/jfcec.23.4.385.406>
 - [19] Y. S. Nam, M. H. Jeon, Mild school violence don't record once by the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https://news.joins.com/article/23338797>, Joongangilbo cited 2019 Jan 31.
 - [20] H. H. Seo, A Study on Teachers' Strategies for Positive Friendship Maintenance in Five-year-old Children's 'Friend Making' Proc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0, No.2, pp.263-290, 2016.

배 재 현(Jael-Hyun Bae)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유아교육